



##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제 15회 농업인의 날 행사 성료

글·사진: 편집부

지난 11월 11일 이 땅의 지킴이 농업인들을 위한 제15회 농업인의 날 행사가 개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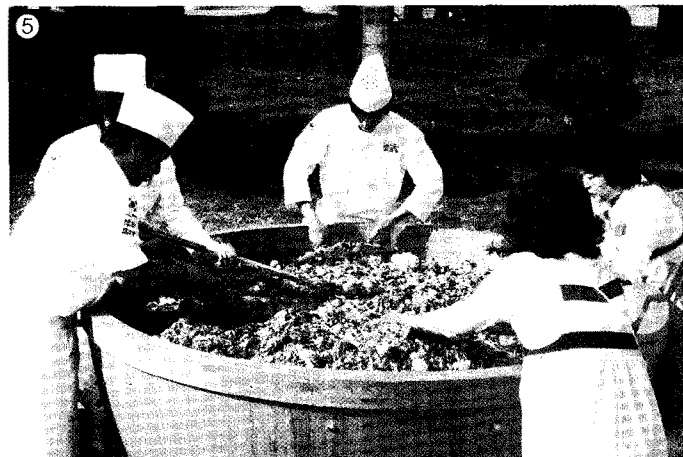
“화합, 상생, 그리고 축제”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이번 행사는 주제에 따라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기념식은 수원 농촌진흥청 대강당에서 화합의 장이라는 주제 아래 열렸으며, 김황식 국무총리,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위원장 및 농

업단체장 등 8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기념식 행사에는 농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우수농업인에 대한 시상식도 열렸다. 금탑산업훈장을 받은 정화영 (주)로즈피아 대표 등 모두 120명이 훈장과 표창을 받았다.

기념식이 끝난 뒤 농업인단체장과 수상자들은 ‘1111인분 화합의 비빔밥’을 만들어 오찬을 함께 했다.



①테이프 커팅식 ②유공자 포상 ③기념식 前 퓨전국악공연 ④농민단체 기자회견 ⑤1111인분 화합의비빔밥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11~13일 삼일간 서울 양재, 경기 성남, 수원 농협물류센터에 농업인의 날 기념 '상생의 직거래장터'를 열었다. 농업인이 생산한 고품질 브랜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생필품 할인행사를 실시하는 등 직거래장터를 활성화 했다.

김 총리는 치사에서 "올해는 이상기후, 태풍, 쌀값 하락 등으로 농업인들에게 특히 힘든 해였다"며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해준 농업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김 총리는 "산업화와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위기를 맞긴 했지만 그래도 농업은 우리의 희망"이라

며 "우리가 하기에 따라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유통업체와 산지간 불공정거래 해소, 쌀 관세 문제 해결, 농지 연금제도 연내 시행, 무역개방 대책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11월11일은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빼빼로 데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날은 농촌과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 '농업인의 날'이다. 농업인은 흙에서 나서 흙을 벗 삼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흙 '土' 자가 겹친 '土月土日'을 농업인의 날로 제정됐다.



6



8



7



6 오리예찬 · 오리책자 및 위생장갑 배포 7 오리요리 전시 일부 8 부대 행사 진행

### 한국오리협회, 양재동 하나로 마트서 다양한 오리요리 전시 및 무료시식 진행

테마별로 다양한 행사가 이뤄진 제15회 농업인의 날 행사는 기념식에 이어 상생의 직거래 장터가 열렸다. 전국의 고품질 농축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전시하여 안전한 농축산물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고취시키고 대 폭 할인 판매도 실시하였다.

이에 우리 협회는 한국식생활개발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가정식 오리요리 10여 가지를 전시하여 오리요리

의 다양성을 알렸다.

또한 전시요리 중 세 가지(오리파생채, 오리인삼불고기, 오리궁중떡볶이) 오리요리를 시식으로 내어놓아 어린이부터 70세 노인까지 골고루 시식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행사장을 찾은 주민들은 “오리요리가 집에서 해먹기에는 부담스럽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레시피 책자가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오리로 이렇게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는지 미처 몰랐다. 아주 맛있다.”, “떡볶이 하면 빨갛고 매운 음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9 시식 준비 10 pop을 유심히 관찰하는 참관객 11 오리예찬·오리책자 및 위생장갑 배포 12 오리고기를 시식하고 있는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오리훈제 떡볶이는 아이들에게도 영양만점 간식이 될 것 같다"며 퓨전오리요리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건강과 위생을 먼저 생각한 깔끔한 시식진행과 더불어 멋스럽고 정갈하게 차려진 오리고기 전시에 "보기좋은 오리가 맛도 좋다"며 감탄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곳은 날씨에도 오리고기를 시식 하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준비해 간 책자 및 위생장갑 물량은 모두 소진되었으며, 오리고기 판매문의가 쇄도했다. 부스 한편에 마련된 오리고기 포스터를 유심히 관찰하는 시민들도 많았다.

이 땅의 지킴이 농업인의 날, 소비자를 직접 만나 오리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견해를 생생하게 전해들을 수 있었던 이번 행사. 지난 8월 오리고기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된 후, 국내산 오리고기를 믿고 구입할 수 있다는 소비자가 점차 늘고 있다. 오리고기 소비촉진 홍보행사가 회를 거듭하는 만큼 행사장에서는 오리고기를 선호하는 더 많은 소비자들과 인사를 나누게 된다. 비약적인 발전을 해온 우리 오리산업이 앞으로 축산업계의 생산액 1위로 발돋움 할 날을 기대해 본다.